

‘안전한 충남’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가동

충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연구 활동을 수행할 ‘충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충남도는 6월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선정 등의 절차를 통해 충남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수탁 협약과 조사연구원 및 전임 연구원 채용 등을 거쳐 이날 개소식을 갖고 명

실상부한 도민 안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앞으로 ▲안전충남 비전 수립 ▲도민안전여건 분석 및 안전지표 개발 도내 재난안전사고 원자료 빅데이터 분석 ▲안전사고 저감 연구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안전비전에 관한 기초 논리 개발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세계표준(ISO)와 도의 각 중장기계획에 부합하는 전략계획으로서의 안전충남비전을 수립하게 된다.



개성공단 4개 기업 3개 시·군에 유치

- 2019년까지 258억 투자 374명 고용...도, 71억 원 지원 계획



충남소식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해 온 충남도가 개성공단 4개 기업을 유치했다.

안희정 지사는 6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기천 케이엠에프(주) 대표, 정길성 (주)에스엠테크텍스 대표, 신한용 신한물산(주) 대표, 최광운 호이(주) 대표, 구본영 천안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업은 오는 2019년까지 도내 3개 시·군 산업단지 5만 1334㎡의 부지에 25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으로, 모두 374명의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다.

자동차 연료필터 생산업체인 케이엠에프는 천안 부송산단 내 1만 6897㎡의 부지에 106억 원을 투입, 2019년 말까지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

또 에스엠테크텍스는 공주 유구자카드산단 내 1만 1050㎡에 2018년 4월까지 수직보호망 생산 공장을 증설기로 하고, 31억 원을 투자한다.

어망 및 어구 생산 업체인 신한물산은 90억 원을 투입, 예산일반산단 1만 6780㎡ 규모의 부지에 2018년 12월까지 공장을 신규 설립한다.

호이 역시 예산일반산단 6607㎡의 부지에 2019년 6월까지 31억 원을 투자해 미역과 다시마, 톳 가공 공장을 새롭게 설립기로 했다.

이들 4개 기업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지역 인력 우선채용,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천안·공주시, 예산군은 4개 기업이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들 기업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 총 71억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들 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따라 도내에서는 생산유발 361억 원, 부가가치유발 134억 원 등의 단발성 건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생산 개시 후에는 매년 1004억 원의 생산액 변화와 167억 원의 부가가치 변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남부·내륙권 계획입지 내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균형발전 도모, 산단 분양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공약이행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 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서...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
- '도민 배심원회의' 운영 등 거버넌스 실천 등에서 높은 평가

충남도가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거두며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폐기나 조정을 감시하고, 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자료 모니터링 평가와 보완자료 검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와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 중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목표 달성 95점, 공약 이행 완료 35점 이상, 주민소통 분야 90점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 일치도 분야 또한 '패스(Pass)'를 받았다.

도가 이번에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인 '도민배심원회의'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도민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민간전문가 및

도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약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포괄적 거버넌스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 현재 공약실천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공약 일치도 분야에서도 공약 이행 정보의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호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약 이행률과 완료도가 다른 시·도보다 높았고, 공약 관리 상황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 도민 누구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대화형으로 운영한 점도 최우수 등급 획득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는 그동안 충남을 21세기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다목적 복합항과 부두 개발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충남 내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서해선 북선전철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선 추진,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지원시스템 확산, 농촌 두레 기업 창업·육성 지원 사업 등 3농혁신 정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

충남소식

화 대응을 위한 복지보건증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

여기에 더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와 행복경로당 확대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구 해소를 위한 닥터헬기 도입 성과도 거뒀다.

도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토론을 통해 공약 채택 여부를 검토, 9대 분야 50개 공약, 152개 세부과제를 민선6기 공약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 중 민선6기(2014년~2015년) 동안 예산확보율은 4조 1972억원(계획대비 18.22%)에 이른다.

공약 실천계획은 도민배심원 회의 등을 통해 우선순위 확정 등 분야별 핵심공약을 심의·선정하고 선거공보와 공약실천계획서와의 차이를 검증한 뒤 확정했다.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은 당초 14조 774억원에서 8조 9,633억원이 증가한 23조 407억원으로, 이중 임기 내 투자는 9조 9,598억원을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제62회 백제문화제 불꽃축제

- 한화그룹, 제62회 백제문화제 스토리텔링 멀티 미디어불꽃축제 활황경 연출기대

오는 9월 23일 부여군 구두래 공원에서 제62회 백제문화제 전야제에 '백제!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한화와 함께 하는 중부권 최대 불꽃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충청남도과 한화그룹은 8월 1일 오후 2시 충남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2회 백제문화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신연 한화이글스 대표이사는 한화그룹을 대표하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에게 '백제문화제 후원 협약증서'를 전달하고, 안희정 지사는 김신연 대표이사에게 '제62회 백제문화제 공식후원사 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그룹은 오는 9월 23일 (금) 오후 8시부터 부여 구두래 공원에서 개최되는 제62회 백제문화제 전야제에서 불꽃과 내레이

션, 퍼포먼스, 음악, 영상, 특수조명 등이 어우러지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불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제62회 백제문화제 전야제는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하와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에 부합하는 특별한 불꽃축제를 선보일 것으로 전해져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화그룹이 2011년부터 해마다 백제문화제에서 선보이는 '중부권 최대 불꽃축제'는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참여형 축제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제62회 백제문화제는 '백제! 세계

를 품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24일부터 10월 2일
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
까지 9일 동안 부여군(개막식)과 공주시(폐막식)

